

## 위기 상황과 현재 상황에서 중학생의 희망 재충전 및 증진 전략 탐색: 개념도(concept map)를 중심으로\*

장유미\*\* · 유금란\*\*\*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희망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 청소년의 희망 증진 전략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 연구법을 사용하였으며, 20명의 중학교 3학년 연구 참여자가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위기 상황에서의 희망 재충전 전략'과 '현재의 희망 증진 전략'에 대한 응답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수집된 자료를 다시 연구 참여자가 분류 및 평정하게 하였다. 희망 재충전 전략에 대한 개념도는 2차원 4분면 상에서 6개의 범주가 원형 분포를 이루었다. 전략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내적 분류 기준은 크게 '전략의 방향성'으로서 내부 지향성 대 외부 지향성 차원과 '부적 상태를 다루는 방식'으로서 긍정적 고취 대 부정적 상태의 해소 차원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희망 증진 전략에 대한 개념도는 2차원 4분면 상에서 4개의 범주가 원형 분포를 이루었다. 전략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내적 분류 기준은 크게 '심리적 영역'으로서 인지적 전략 대 정서적 전략 차원과 '부적 상태를 다루는 방식'으로서 긍정적 고취 대 부정적 상태의 해소 차원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 및 함의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희망, 개념도, 희망 재충전 전략, 희망 증진 전략

\* 본 연구는 2015년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석사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제1저자 및 교신저자, eyas2000@hanmail.net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 I. 서 론

희망은 긍정심리학의 다양한 개념들 중 하나로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큰 잠재력을 가진 변수이다(Snyder, 1994). 희망에 대한 다학문적 연구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희망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토대로 '희망이론'을 정립한 Snyder의 연구가 가장 유력하다. Snyder는 희망을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행동하도록 하는 동기와 목표를 향해 움직이려는 인지적 의지력이라 정의했다(Snyder, Lapointe, Crowson & Early, 1998).

희망이 심리적 안녕감과 깊은 연관성이 있고 용서, 창조성, 용기, 영성, 자율성, 자기 통제와 정적 상관을 갖는다(Snyder, 2002)는 Snyder의 연구결과는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희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Snyder의 연구(1991)는 위기 상황에서 희망수준에 따른 개인의 대처법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즉, 고희망 집단은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간다. 즉 위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찾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등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반면 저희망 집단은 어려움을 비효과적으로 대처한다. 즉,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서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데 소극적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 높은 희망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살,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당면한 현재 학교 현장에서 한국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심리적 자원으로서의 희망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신체적으로 급성장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기는 위기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박미자, 2003).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자살'은 한국 청소년들이 발달 단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반적인 불안정성을 넘어선 큰 심리적 위기감에 당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점에 청소년 희망연구는 위기의 청소년들이 다시 삶에 대한 희망을 되찾아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방법론을 탐색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심리적 위태로움에 당면한 한국 청소년들에게 희망은 매우 필요한 심리적 자원이다. 그러나 한국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희망 개입법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연구는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데, 주로 'Snyder의 희망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정미나와 이창식(2011)에 의하면 대부분의 청소년 희망 연구에서 Snyder의 척도가 사용된 '희망 변인과의 관련성 측정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Snyder의 희망이론을 바탕으로 한 '희망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이 그 다음 순서로 많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희망 연구의 양적 증가는 Snyder의 희망 프로그램 및 희망 척도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큰 기여를 했지만 여러 가지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기쁘다, 2008).

기존 청소년 희망 연구의 한계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Snyder의 인지-동기 모델을 청소년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서 한국 청소년의 특성 및 발달 단계를 고려한 실질적 연구가 부족하다. 즉, 기존 연구들은 크게 희망 변인 사이의 관련성 연구 및 희망증진 개입의 효과성 검증이 주를 이루는데 대부분의 연구는 Snyder의 희망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어서(정미나, 이창식, 2011) 청소년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두 번째, 기존의 연구주제는 희망의 개념 및 이론적 구조를 파악하려는 심도 깊은 연구보다는 특정 변인과 희망 변인간의 관련성을 측정하는 피상적인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기쁘다, 2008). 또한 변인 연구에 사용된 척도가 대부분 Snyder의 희망 척도라는 점에서 또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들어낸다. Snyder의 희망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했던 최유희(2008)에 따르면 모든 변인 연구가 Snyder의 희망 척도를 타당화 또는 재구조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해왔다. 세 번째,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상담 전문가에 의한 희망 연구가 희소하여 학교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의 희망 연구는 시작에 불과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희망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부족하다. 네 번째, Snyder의 인지-동기 모델에서는 희망의 인지적 측면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적받고 있다(기쁘다,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Snyder의 희망 개입이 보완, 수정되지 않은 채로 여러 상담 현장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한국 또한 마찬가지 실정이다. 송미순(2000)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희망의 다차원에 대한 질적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희망은 인지적 차원 이외에도 다양한 차원을 가진 변인일 수 있다. 이와 유사 연구로서 기쁘다(2008)는 희망이론을 한국 맥락을 고려하여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서, 미래 방향성의 요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문화적으로 민감한 희망의 정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희망의 정의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선행 연구들이 논의한 희망연구의 한계점들은 새로운 관점에서의 청소년 희망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한국 청소년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척도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학교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희망 탐색 접근 연구가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

##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의 희망 전략들을 밝히는 탐색단계의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연구자의 견해를 최대한 배제하고,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또한 후속 연구로서 청소년-희망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서 사용 가능한 결과를 산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개념도 연구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개념도 연구법을 선택하였다. 개념도는 William Trochim에 의해 1989년에 최초로 체계화 되었으며 질적 자료를 양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법이며 통계적으로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sional scaling),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에 기초로 한다. 개념도는 현상에 대해 지각한 개념을 시각화한다. 즉 연구 참여자들의 특정경험과 관련한 내용영역, 해당 구성요소를 개념도라는 최종 결과물로 제시하므로 범주의 위치, 중요도를 통해 연구자는 대상 집단의 특정 경험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1. 연구 참여자

#### 1) 중학교 3학년

중학교 시기는 엄청난 성장, 변화의 시기이며 전두엽이 미발달하여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 즈음 전두엽이 발달되어 이성적, 합리적, 추론력, 이해력이 발달한다. 그 결과 희망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접근이 가능하며, 경험을 반추하여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다고 보여지므로(박미자, 2013) 중학교 3학년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 2) 연구 참여자 선정

개념도 연구법을 통해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최적의 연구 참여자 수를 선택하기 위해 기존 연구를 탐색한 결과, 최소 10명이어야 하며 최대 40명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다(Kane & Trochim, 2006)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그리고 Trochim(1989)은 개념도 제작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10명에서 20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의 목적과 상기 주장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S중학교의 3학년 20명(남녀 각각 10명)을 청소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개념도를 작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상담실 게시판에 게시한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를 보고 희망한 연구 참여자 중 선착순으로 20명을 선정하였다. 즉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1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 후에는 소정의 작은 상품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배부되었다.

## 3) 연구자 평정 집단 선정

개념도 연구법에서는 3인 이상의 연구자 평정 집단을 구성해야 하므로 연구자를 포함한 3명의 평정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자외 두 명의 평정자는 심리학과 상담전공 박사 수료자이다.

평정자는 개념도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과정에 참여하였다. 먼저, 축어록으로 작성한 응답 내용의 의미를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분류와 평정이 수월하도록 축어록을 비중복적인 단문장으로 바꾸는 작업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표상에 표시된 진술문들의 범주수와 범주 명칭을 정하여 개념도를 완성시키는 작업에 참여하였다.

## 2. 연구절차

개념도 작성 절차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연구 참여자 집단으로부터 연구문제와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 두 번째, 연구 참여자에 의한 비구조화된

문항 분류 및 평정 작업, 세 번째, 다차원 척도법과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한 개념도 작성 작업등이 그것이다(Kane & Trochim, 2006).

### 1) 1 단계 : 기초자료 수집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집단에게 연구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응답 자료를 수집한다. 이 때 1:1 개별 면접을 통해 단일 질문에 대해 자유반응식 응답을 최대한 끌어낸다. 질문 1은 희망 재충전 전략으로 위기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희망을 충전하여 위기를 극복해내고 나아가게 했던 전략을 묻고 있으며, 질문 2는 위기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속에서 자신의 희망 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용한 전략들을 묻고 있다.

본 연구에서 면접 시간은 1인 평균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접 내용은 녹음하여 축어록으로 제작하였다. 남학생 10명과 여학생 10명을 인터뷰하는데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다.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 1. 어렵고 힘들었을 때, 포기하고 싶었을 때 당신을 다시 나아가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질문 2. 어떻게 하면 당신의 현재 희망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까?

### 2) 2단계 : 문항군 작성

축어록 내용의 의미를 보존하면서도 분류 작업이 수월하도록 연구자 평정집단의 토론을 통해 축어록을 통합된 단문장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Giorgi(1995)의 질적 연구 4단계를 따랐다. Trochim(1989)에 의하면 문장수는 대략적으로 80개에서 100개 정도 적합하다. 그러나 개념도를 활용한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50개에서 60개 사이의 문장수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최윤정, 김계현, 2007; 최한나, 김창대, 2008). 또한 기초자료 수집 과정에서 질문 1에 대한 20명(남녀)의 답문은 73개였고, 그 중에서 중복된 내용 또는 유사 내용을 단일 문장으로 추려서 53문장으로 편집되었다. 질문 2에 대한 20명(남녀)의 답문은 총 77개였고, 그 중에서 중복된 내용 또는

유사 내용을 단일 문장으로 추려서 50개의 문장으로 편집되었다. 연구자는 전사된 모든 내용을 기술하고, 평정자들과 함께 7시간에 걸쳐서 문장 편집과정을 진행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평정자들이 모여서 연구 참여자가 “위기 상황에서 사용했던 희망 재충전 전략”을 묻는 질문 1.에 대한 응답 내용 중 53개의 문장을, “현재 상황에서의 희망 증진 전략”을 묻는 질문 2.에 대한 응답 내용 중 50개의 문장을 선택하였다.

### 3) 3단계 : 분류 및 평정

이 단계에서는 최종 문장들 각각을 한 개의 카드에 기록하고 연구 참여자가 카드에 기록된 최종 문장들을 분류하고 평정한다.

연구자는 2단계에서 선택된 최종 문장들을 각각 한 개의 카드에 기록하였다. 53개, 50개의 진술문 카드가 만들어졌다. 이를 최초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시하고, 카드를 분류하도록 “유사한 것 끼리 모으세요”라고 요청하였다. 이 때 모든 진술문들은 하나의 범주로 분류할 수 없고, 전체 범주가 2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만을 제시하고 비구조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분류 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각 범주에 가장 적합한 제목을 명명하도록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각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주관적 평정이 5점 리커트 척도상에서 실시되어 연구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각 문항의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진술문 카드 분류 및 평정작업은 개인 당 평균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되었다. 분류 및 평정 작업은 8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 4) 4단계 : 통계처리(SPSS)

이 단계에서는 다차원 척도법과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된 자료를 분석한다.

먼저 20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들을 갖고 유사성 행렬표(Similarity Matrix)를 만들었다. 동일 범주로 묶인 진술문은 0으로, 다른 범주로 묶인 진술문은 1로 코딩하였다. 질문 1에 대한 53×53 유사 행렬표와 질문 2에 대한 50×50 유사 행렬표가 연구 참여자 수만큼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20명의 유사 행렬표를 합산하여 집단 유사 행렬표(Group Similarity Matrix: GSM)를 만들었다. 다음으로

GSM을 기초로 SPS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다차원 척도 분석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진술문들이 좌표위에 점으로 표시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더 빈번하게 같은 범주로 묶었던 진술문들은 좌표상에서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했고, 더 자주 다른 범주로 분류됐던 진술문일수록 좌표상에서 먼 거리에 위치했다. 그리고 다차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합치도를 이용하여 플롯맵을 작성하고, 차원수를 결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다차원 분석을 통해 매트릭스에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근접성에 따른 범주화 작업을 하였다. 위계적 군집분석은 좌표상에 있는 점들을 내적으로 일관된 군집으로 분할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최윤정, 김계현, 2007). 위계적 군집분석은 Ward 연결 방법을 기초로 하는데, 이것은 거리를 기반으로 군집을 분류하여 자료로부터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유용하다(Kane & Trochim, 2006). 마지막으로 범주수와 범주명 및 차원명을 결정하는데, 개념도와 관련하여 이 세가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면서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연구 주제의 전체적 맥락과 연구자 및 평정자의 주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Jackson & Trochim, 2002; Trochim, 198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평정 집단,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의 직관과 진술문들의 좌표상의 분포를 고려하여 범주수와 범주명 및 차원명을 결정하였다. 질문 1.에 대한 진술문 53개와 질문 2.에 대한 진술문 50개를 다차원 분석을 하여 차원수는 2로 정해졌다. 각각의 진술문에 대한 차원명이 결정되었고, 5개의 범주수와 범주명이 결정되었다.

#### 5) 5단계 : 설명력 검증

이 단계는 연구 참여자들에 의한 평정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평정자들에게 “잠재적 축이 진술문들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라는 질문을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했다.

### Ⅲ. 결 과

#### 1. 개념도 분석

##### 1) 차원

##### (1) 차원의 수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문 카드를 분류한 결과를 집단 유사성 행렬 형태로 만들어서 SPSS로 다차원 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 MDS)을 하여 합치도(Stress value)를 계산했다. 합치도란 MDS 모형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분산의 불일치 정도로서 대상들 간의 실제거리와 추정된 거리 사이의 오차를 의미한다. 합치도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추정거리와 실제거리가 완전히 일치하면 0이 된다. 그러므로 합치도 값이 작을수록 추정거리의 적합도는 높다.

합치도를 이용하여 적절한 차원의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차원의 수의 증가에따라 줄어드는 스트레스 값을 이용하여 스트레스 플롯(stress plot)을 그리고 플롯을 기초로 하여 차원수를 결정하게 된다(박광배, 2000). 본 연구의 스트레스 플롯은 그림 1,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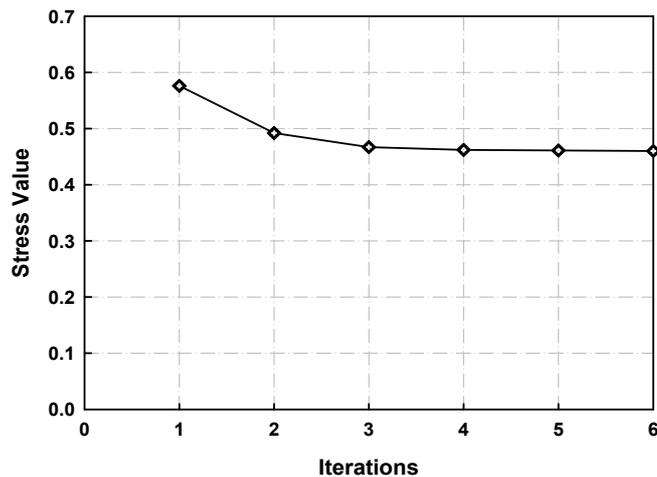


그림 1. 스트레스 플롯(stress plot)-희망 재충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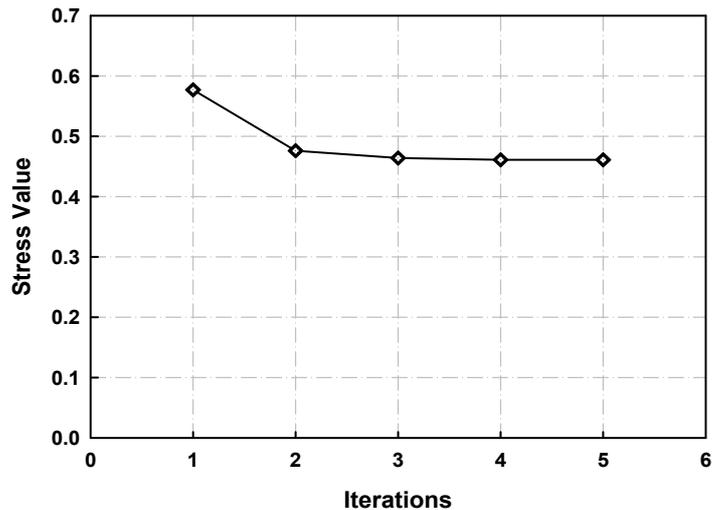


그림 2. 스트레스 플롯(stress plot)-희망 증진 전략

그림 1과 그림 2의 스트레스 플롯을 보면 차원수가 1에서 2가 될 때, 그래프의 기울기가 크게 꺾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ruskal(1964)은 스트레스 플롯의 기울기가 처음으로 크게 꺾이는 지점의 차원수를 선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이유는 차원수가 더 증가하여도 합치도의 증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원수를 2개로 결정하였다.

## (2) 차원명

차원수를 2개로 설정하고, 53개와 50개의 진술문들을 좌표상에 점으로 표시하면 가까이 위치한 점들은 멀리 위치한 점들에 비해 더 빈번하게 같은 범주로 분류되었던 것들이다. 이러한 점들의 위치와 거리,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이 카드를 분류할 때 사용한 제목들을 참고하여 차원1과 차원2의 이름을 설정하였으며 그림 3, 그림 4와 같다.

질문 1.에 대한 다차원 분석 결과, 그림 3과 같이 차원1과 차원 2에 의해 위기 상황에서 희망 재충전 전략이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략들을 분류하는 기준이 된 차원명을 정하기 위해  $x$ ,  $y$ 축을 중심으로 군집들의 공통점을 추출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x$ 축을 기준으로 한 차원명을 살펴보면, 차원 1인  $x$ 축을 기준으로 왼편은 희망 재충전 전략 중 '외부 지향성'에 해당하는 진술문들이 분포했고, 오른편은 희망 재충전 전략 중 '내부 지향성'에 해당하는 진술문들이 분포했다.  $x$ 축을 기준으로 왼편인 '외부 지향성' 차원에는 숙면, 친구들과 놀기, 친구들과 대화하기, 일기 쓰기, 책읽기, 만족스러운 학교생활 등 소소한 일상생활이 주는 즐거움에 해당하는 항목들과 친구나 가족의 위로와 사랑에 해당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 차원에는 외부 대상과의 관계 및 교류를 통해 희망을 충전하는 전략들이 분포하고 있다.  $x$ 축을 기준으로 오른편인 '내부 지향성' 차원에는 여러 가지 내적 대화(예를 들면, 할 수 있어. 괜찮아, 피하지 말자 등)로 표현되는 긍정적으로 생각 바꾸기와 극복의지를 통해 자신을 독려하는 항목들, 더 발전한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자신을 독려하는 항목들이 분포하였다. 즉 이 차원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및 교류를 통해 희망을 충전하는 전략들이 분포하고 있다.

다음으로, 차원 2인  $y$ 축을 기준으로 위쪽은 희망 재충전 전략 중 '긍정적 고취(나아감)'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분포했고, 아래쪽은 희망 재충전 전략 중 '부정적 상태의 해소'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분포했다.  $y$ 축을 기준으로 위쪽인 '긍정적 고취' 차원에는 부정 상태의 승화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취미 활동, 미래에 대한 낙관성, 생각 바꾸기 등의 항목들이 분포하였다. 즉 이 차원에는 자신의 부정적 상태에서 나아가 자신의 상태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전략들이 분포했다.  $y$ 축을 기준으로 아래쪽인 '부정적 상태의 해소' 차원에는 친구들과 가족의 존재감으로 인한 위로 그리고 잘 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항목들이 분포했다. 즉 이 차원에는 절망적인 내적 상태를 완화시키는 또는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는 전략들이 분포했다.

질문 2.에 대한 다차원 분석 결과, 그림 4와 같이 차원1과 차원 2에 의해 현재 상황에서의 희망 증진 전략이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략들을 분류하는 기준이 된 차원명을 정하기 위해  $x$ ,  $y$ 축을 중심으로 군집들의 공통점을 추출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차원 1인  $x$ 축을 기준으로 왼편은 현재의 희망 증진 전략 중 '인지적 전략'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분포했고, 오른편은 현재의 희망 증진 전략 중 '정서적 전략'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분포했다.  $x$ 축 왼편의 '인지적 전략'에는 자신을 격려하는 내적 진술, 미래를 위해 노력을 다지는 내적 진술, 삶의 비전과 기대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분포했다. 즉 이 차원은 현재의 희망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적 전략에 해당한다.  $x$ 축 오른편의 '정서적 전략'에는 분노조절, 상처치유, 자기 위로, 취미 생활 등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조절하는 것에 해당하는 항목과 타인의 격려와 관심 등을 통해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는 것에 해당하는 진술문들이 분포했다. 즉 이 차원은 현재의 희망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서적 전략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차원 2인  $y$ 축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현재의 희망 증진 전략 중 '긍정적 고취(나아감)'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분포했고, 위쪽은 현재의 희망 증진 전략 중 '부정적 상태의 해소'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분포했다.  $y$ 축 위쪽의 '부정적 상태의 해소' 차원에는 자기 격려, 친구들과의 관계, 치유 등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키거나 해소하는 것에 해당하는 항목이 분포했다.  $y$ 축 아래쪽의 '긍정적 고취' 차원에는 미래를 위한 노력, 열심히 공부하기, 목표의식 등 자신의 힘든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다짐에 해당하는 항목들과 좋아하는 활동 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 상태로 나아가는 것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분포했다.

결론적으로 위의 사항들을 종합하여 '희망 재충전 전략'의 차원 1은 '희망을 재충전하는 방식의 방향성'으로서 '외부 지향성'대 '내부 지향성' 차원으로, 차원 2는 '희망을 재충전 할 때, 부적 상태를 다루는 방식'으로서 '긍정적 고취'대 '부정적 상태의 극복'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긍정적 고취'란 자신의 어려움 또는 부정적 상태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부정적 상태의 극복' 차원은 '긍정적 고취' 보다 소극적인 개념으로서 자신의 부정적 상태를 완화시키거나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희망 증진 전략'의 차원 1은 '희망을 증진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심리적 영역'을 중심으로 '인지적 전략'대 '정서적 전략' 차원으로, 차원 2는 '희망을 증진시키기 위해 부적 상태를 다루는 방식'으로서 '긍정적 고취'대 '부정적 상태의 해소'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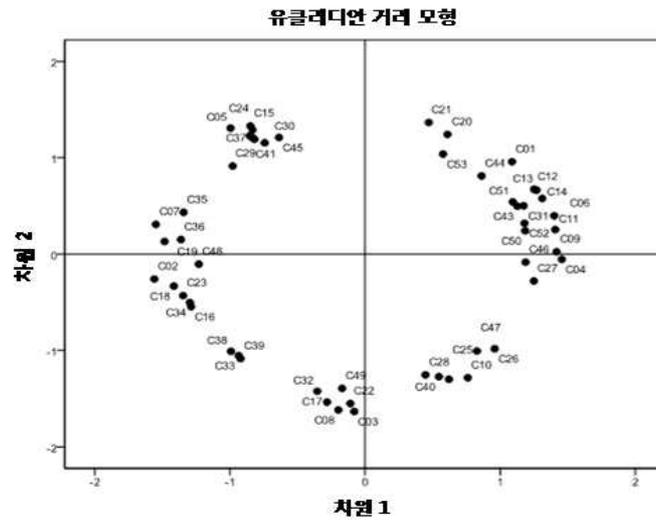


그림 3. “어렵고 힘들었을 때, 포기하고 싶었을 때 당신을 다시 나아가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다?”에 대한 다차원 척도분석 결과(1×2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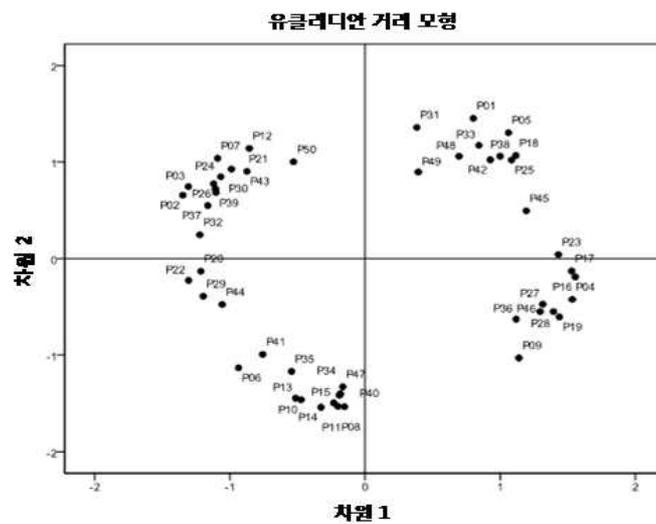


그림 4. “어떻게 하면 당신의 현재 희망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까?”에 대한 다차원 척도분석 결과(1×2차원)

## 2) 범주

### (1) 범주의 수

다차원 척도 분석을 한 후, 군집 분석을 통해 범주의 수를 정하게 되는데, 최종 범주를 구분할 때 연구자의 사전 지식이나 연구 문제의 특징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개념도 연구법에서 범주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따라서 연구주제의 맥락에 맞게 연구자와 연구평정자 집단의 주관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군집 분석 결과와 연구 참여자들이 선택한 범주의 수, 좌표상의 진술문들의 분포를 고려하여 적합한 범주의 수를 결정하였다.

범주수를 결정하기 위해 세 가지를 고려하였는데 첫 번째, 덴드로그램(Dendrogram)이다. 다차원 분석을 통해 얻은 2차원 좌표 값을 이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이것을 통해 덴드로그램을 얻었다. 덴드로그램 상으로 볼 때, 적절한 범주의 수는 ‘희망 재충전 전략’의 경우 6개에서 8개가 적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희망 증진 전략’의 경우 4개에서 6개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연구 참여자들이 분류했던 범주의 수인데 연구 참여자들은 희망 재충전에 관한 진술문 카드를 최소 5개에서 최대 12개로, 희망 증진에 관한 진술문 카드를 최소 5개에서 최대 14개로 범주화하였다. 세 번째, 군집분석 결과 서로 같은 범주로 묶인 진술문들의 유사성과 범주들 간의 진술문들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 결과에 적합한 범주수를 ‘희망 재충전 전략’의 경우에 6개로 ‘희망 증진 전략’의 경우에 4개로 결정하였다.

### (2) 범주명

범주명을 정하는데 있어서 좌표 상 진술문들의 분포, 참여자들이 진술문 카드 분류 후 명명한 범주의 이름을 고려하였다. 범주명과 그 범주에 속한 진술문들의 중요도를 연구 참여자들의 평정을 통해 측정하였고, 평정 평균이 높은 순으로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범주의 좌표상의 분포는 그림 5, 그림 6과 같다.

표 1  
분류된 범주와 범주명 및 중요도 - 희망 재충전 전략

범주명	번호	진술문	평균	그룹 평균
Group 1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및 극복의지 세우기	1	살아보면 좋은 날이 있을 거라는 기대	3.67	3.83
	4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했다.	3.71	
	6	지금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	3.76	
	9	나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	3.59	
	11	참아보자는 다짐	3.12	
	12	난 할 수 있다는 생각	4.00	
	13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열심히 노력하기	3.94	
	14	실패의 원인을 반성하여 개선해 나간 것	3.65	
	27	지금보다 더 잘 하고 싶다는 마음	4.65	
	31	자기위로(스스로 괜찮다고 말하기)	3.94	
	43	역경 중에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낸 것	3.71	
	44	내일이 되면 괜찮아 질거라는 생각	3.94	
	46	강해지고 싶다는 마음	4.12	
	50	이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	3.71	
51	이 상황에 대한 수용, 받아들임	3.94		
52	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3.82		
Group 2 미래에 대한 낙관성	20	미래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	4.59	4.43
	21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서	4.41	
	53	앞으로의 내 모습이 궁금해서	4.29	
Group 3 이완 및 위안 활동	5	맛있는 거 먹기	2.82	3.32
	15	숙면	3.94	
	24	음악듣기, 노래하기	3.82	
	29	학생으로서의 임무에 충실	3.06	
	30	여행을 통한 휴식	4.00	
	37	선생님의 조언	3.12	
	41	책읽기	2.59	
	42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3.88	
45	일기쓰기	2.65		

범주명	번호	진술문	평균	그룹 평균
Group 4 관계에서의 지지	2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4.12	3.67
	7	친구랑 대화할 때의 즐거움	3.65	
	16	내가 혼자가 아니고 곁에 친구들이 있다고 느낄 때	3.71	
	18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것	3.47	
	19	친구와 흥미에 대해 나눈 것	3.24	
	23	친구의 칭찬	3.59	
	33	친구들의 위로 격려	3.41	
	34	선생님의 위로, 격려	2.94	
	35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것	4.12	
	36	만족스러운 학교생활	3.71	
	38	좋아하는 선생님의 존재감	3.35	
	39	다른 사람의 인정	4.47	
Group 5 가족에 대한 사랑	48	좋은 친구들이 많아 질거라는 기대	3.88	3.88
	3	가족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3.65	
	8	부모님의 존재감	3.82	
	17	가족의 사랑	4.00	
	22	나중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서	4.00	
	32	가족들의 위로, 격려	3.71	
Group 6 잘하고 싶은 마음	49	나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 희망	3.24	3.91
	10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잘 할 때의 뿌듯함	4.24	
	25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4.06	
	26	경쟁심	3.35	
	28	미래에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고 싶다는 생각	3.59	
	40	취미생활	4.00	
47	남에게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4.24		

표 2  
분류된 범주와 범주명 및 중요도 - 희망 증진 전략

범주명	번호	진술문	평균	그룹 평균
Group 1 관계적 지지 및 치유	1	친구에게 다가서는 용기	4.06	3.83
	5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	4.35	
	18	주변 사람들의 관심	3.65	
	25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3.94	
	31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흘려보내기	3.47	
	33	다른 사람들의 격려	3.18	
	38	폭넓은 대인관계	4.47	
	42	인기를 얻는 것	3.88	
	45	상처의 치유	4.00	
	48	분노조절	3.47	
	49	자기 위로	3.71	
Group 2 자기 격려	2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감사	4.12	4.22
	3	할 수 있다는 자신감	4.65	
	7	긍정적인 생각	4.41	
	12	좌절을 극복한 경험	3.59	
	20	나만의 개성 찾기	4.12	
	21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4.35	
	22	포기하지 않는 의지	4.47	
	24	나를 사랑하는 것	4.06	
	26	나를 믿어주는 것	4.12	
	29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	4.24	
	30	나는 최고야라고 스스로에게 격려하기	3.76	
	32	나의 장점 찾아보기	4.19	
	37	할 수 있다는 용기	4.59	
	39	내가 나를 도와주는 것	3.82	
	43	당당해지는 것	4.18	
	44	나중에 잘 될거라는 믿음	4.53	
50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	4.47		

범주명	번호	진술문	평균	그룹 평균
Group 3 삶의 비전	6	미래를 위한 노력	4.12	4.22
	8	꿈 찾기	4.82	
	10	성취감 느끼기	4.53	
	11	내가 원하는 분야 사람들의 성공한 모습 보기	4.00	
	13	열심히 공부하기	3.82	
	14	좋은 성적	3.88	
	15	꿈을 이루겠다는 목표의식	4.47	
	34	진로계획 세우기	3.94	
	35	내가 계획 세우고 실천하는 것 (자기 주도성)	3.65	
	40	꿈을 이룬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4.18	
	41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	4.59	
	47	능력 발휘	4.59	
Group 4 좋아하는 활동	4	애완견	3.12	3.58
	9	흥미 있는 일을 하는 것	4.41	
	16	봉사	3.12	
	17	기도와 전도	2.29	
	19	음악 듣기	3.65	
	23	스트레스 해소법 찾아내기	4.00	
	27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는 것	3.94	
	28	여행을 통한 휴식	4.12	
	36	힘을 주는 영상물(드라마, 영화, 다큐) 보기	3.12	
	46	취미생활	4.06	

위기 상황과 현재 상황에서 중학생의 희망 재충전 및 증진 전략 탐색: 개념도(concept map)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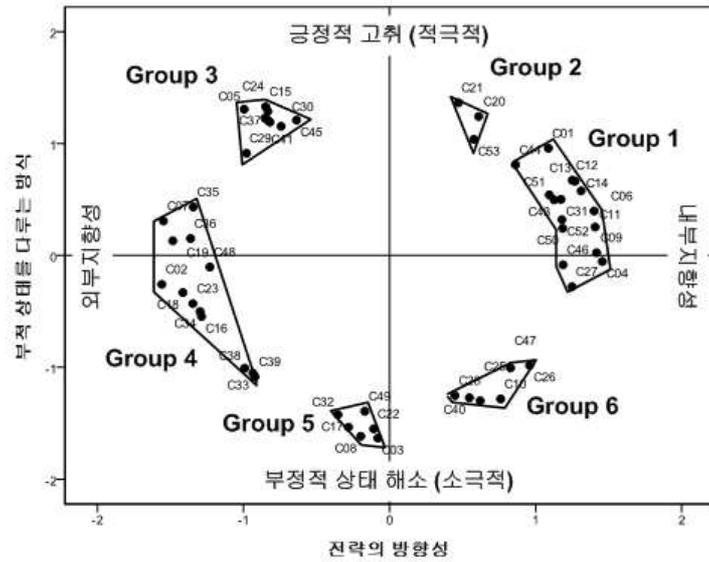


그림 5. 희망 재충전 전략에 대한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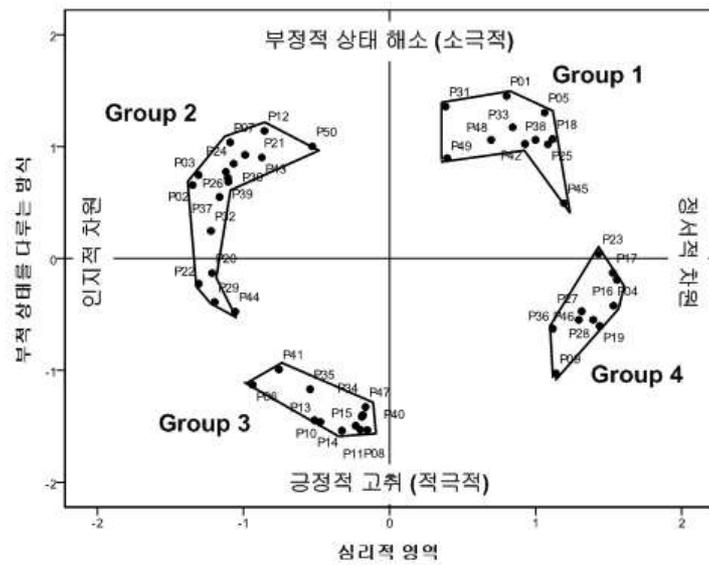


그림 6. 희망 증진 전략에 대한 개념도

### (3) 중요도 평정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53개, 50개의 진술문에 대해 희망 재충전 또는 희망 증진을 위해 각각의 진술문이 말하는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5점 척도(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5점: 매우 중요하다)로 평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위기 상황에서 또는 현재 상황에서의 희망을 증진시키기 위해 청소년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전략들 즉 중요도 평정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그룹들은 미래에 대한 낙관성, 자기격려, 삶의 비전 그룹이었다. 이것은 후속 순위를 차지한 관계 중심적 전략들로 이루어진 항목들과 대비된다. 이것을 통해 청소년들이 희망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전략들은 자기 주도적이며 인지적인 차원의 전략들이 나타났다.

## 2. 개념도 해석 1 (희망 재충전 전략)

청소년이 위기 상황에서 희망을 재충전하는 전략에 대한 개념도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를 보면 연구 참여자가 분류한 53개의 진술문들이 다차원 척도 분석에 의해 좌표상에 분포되었으며, 분포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가 가까울수록 더 빈번하게 같은 범주로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차원 척도 분석에 근거한 개념도의 잠재적 축과 군집 분석 및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문 카드 분류 기준을 통해 결정한 범주명을 근거로 청소년의 희망 재충전 전략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희망 재충전 전략에 대한 개념도는 2차원의 4사분면 상에서 6개의 범주가 원형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다. 그림 5와 같이 전략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내적 분류 기준은 크게 '전략의 방향성'으로서 내부 지향성 대 외부 지향성 차원과 '부적 상태를 다루는 방식'으로서 긍정적 고취 대 부정적 상태의 해소 차원으로 나누어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청소년들은 개념도의 전체 범주에서 평균 3.84의 평정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전략의 방향성 면에서 내부 지향성(중요도 평균 4.06)을 나타내는 영역(1, 4분면) 내의 범주 1, 2, 6을 외부 지향성(중요도 평균 3.62)을 나타내는 영역(2, 3분면) 내의 범주 3, 4, 5 보다 더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에서 외부 대상을 매개로 한 희망 재충전 전략 보다는 자신의 내적인 또는 심리적 상태를 스스로 전환시키거나 극복하는 전략을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범주 1은 영역 안에 문항들이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에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고, 스스로 극복 의지를 세우는 것을 희망을 재충전하는 전략 중 하나의 범주로서 뚜렷히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범주 6에서 40번인 '취미생활'은 언뜻 보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범주명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문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연구 참여자는 힘을 들이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다른 친구들보다 잘하고 즐겨하는 소활동, 예를 들면 네일 아트, 요리, 만화 그리기 등의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향상된다고 보고했다.

### 3. 개념도 해석 2 (희망 증진 전략)

청소년이 현재 상황에서 희망을 충전하는 전략에 대한 개념도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를 보면 연구 참여자가 분류한 50개의 진술문들이 다차원 척도 분석에 의해 좌표상에 분포되었으며, 분포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가 가까울수록 더 빈번하게 같은 범주로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희망 증진 전략에 대한 개념도는 2차원의 4사분면 상에서 4개의 범주가 원형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다. 그림 6에서 보면 전략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내적 분류 기준은 크게 '심리적 영역'으로서 인지적 전략 대 정서적 전략 차원과 '부적 상태를 다루는 방식'으로서 긍정적 고취 대 부정적 상태의 해소 차원으로 나누어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청소년들은 개념도의 전체 범주에서 평균 3.96의 평정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심리적 영역' 면에서 인지적 전략(중요도 평균 4.22)을 나타내는 영역(2, 3분면) 내의 범주 2, 3을 정서적 전략(중요도 평균 3.70)을 나타내는 영역(1, 4분면) 내의 범주 1, 2 보다 더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현재의 희망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정서적 전략보다는 인지적 전략을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인지적 전략이면서

동시에 중요도 평정치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범주 2, 3은 삶의 비전, 자기격려 등 개인 내적인 것이다.

한편, 그림 6을 보면 범주 1에 관계적 지지를 의미하는 항목들과 치유를 의미하는 항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이 관계에서의 지지와 치유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계에서의 지지를 경험할수록 심리적 치유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며, 심리적 치유를 경험할 때 더 높은 관계에서의 지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인식한다고 말할 수 있다.

#### IV. 논 의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통해 한국 청소년들의 희망 증진 전략을 탐색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개념도 연구법을 사용하였다. 개념도 작성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 희망을 재충전 했던 전략과 현재의 희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별 인터뷰를 통해 연구 대상자들에게 질문하여 53개, 50개의 진술문을 얻었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들의 진술 문들을 그들이 분류하게 하여 그 결과를 다차원 분석하고 위계적으로 군집 분석하여 개념도를 완성하였다. 이렇게 결정된 개념도는 2차원이며, 6개(희망 재충전 전략)와 4(희망 증진 전략)개의 범주수 및 범주명을 가진 형태로 완성되었다.

개념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희망 재충전 전략과 희망 증진 전략 모두에서 2차원의 잠재적 축이 '긍정적 고취 대 부정적 상태의 해소'이다. 이것은 긍정심리학의 개념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삶의 문제나 불편함을 극복하는 소극적 차원에서 삶을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옮겨가는 적극적 차원이 긍정 심리학의 전제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 내재된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개념도의 2차원이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한국 청소년들은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재충전하거나 현재의 희망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 외부 대상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신의 내적인 상태를 전환시키거나 극복하기 위한 인지적 전략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 한국의 청소년들이 제안한 위기 상황 또는 현재의 희망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탐색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희망의 개념이 인지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것이라는 Snyder의 주장(Snyder, Lapointe, Crowson

& Early, 1998)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관계적인 차원, 학업 이외에 만족감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좋아하는 활동들 또한 한국 청소년들에게는 배재할 수 없는 희망의 중요한 측면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청소년 희망 연구가 희망에 대한 양적 접근을 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희망에 대한 질적 접근을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희망증진 전략에 대해 직접 질문하고 그 응답내용을 연구 참여자들이 분류, 평정하게 하여 청소년 희망 연구의 실질적인 깊이를 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청소년 희망 연구에 대한 기존의 질적 연구(기쁘다, 2008)는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희망의 정의를 개념도 연구법으로 탐색하는데 그쳤다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희망을 어떻게 삶의 전략으로 활용하는지를 탐색함으로써 희망에 대해 더 폭넓고 깊은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이후에 진행될 한국형 청소년 희망 증진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연구 결과의 응답 내용들이 그 아이디어 생성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생각 긍정적으로 바꾸기, 미래에 대한 낙관성, 이완 및 위안 활동, 관계적 지지 등 한국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희망 증진 개입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들은 향후 희망증진 프로그램을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기존 청소년 희망 연구는 Snyder의 희망 이론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한국 청소년의 맥락을 반영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희망에 대한 진술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되어 한국 청소년들의 특성이 반영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즉, 한국 청소년 희망 연구의 대부분은 희망의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와 달리 본 연구는 희망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밝히고 있다. 즉 희망을 높이기 위한 전략들을 인지적 측면, 정서적 측면, 외부 지향성, 내부 지향성, 긍정적 고취, 부정적 상태의 해소 등 다차원으로 조명함으로써 희망을 포괄적이고 입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셋째, 위기 상황에서 부적 상태를 넘어선 긍정적 상태로의 인간 내부의 지향성을 희망이라는 개념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제안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전 지역의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 다양한 학년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20명의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념도 연구 대상자 수에 적합한 것이긴 하지만 더 많은 대상으로 한다면 청소년들의 희망에 대한 폭넓은 개념들을 얻을 수 있다. 개념도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100명까지도 선정하여 진행하는 연구들이 있다. 후속 연구로서 더 많은 연구자들을 선정하여 더 풍부한 희망 전략들을 탐색하고 남녀 차이 또한 분석해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형 청소년 희망 프로그램 및 희망 척도 개발을 후속 연구로 진행할 수 있다. 즉, 프로그램의 각 회기별 내용을 희망 척도 구성에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중 자발적으로 자원한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주로 정부청사 공무원들의 자녀들 즉,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단을 감안하여 해석에 주의를 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기쁘다 (2008). *The concept map dimensionality of hope perception in korean adolescents*.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광배 (2000). *다차원척도법*. 서울: 교육과학사.
- 박미자 (2003). *중학생, 기적을 부르는 나이*. 서울: 들녘 출판사.
- 송미순, 이은옥, 박영숙, 하양숙, 심영숙, 유수정 (2000). 희망의 개념 분석: 항암화학 요법을 받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대한간호학회지*, 30(5), 1279-1291.
- 정미나, 이창식 (2011). 청소년의 희망에 관한 연구동향. *청소년학 연구*, 18(3), 273-299.
- 최유희 (2008). *희망 척도의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윤정, 김계현 (2007). 고학력 기혼 여성의 진로단절 위기 경험에 대한 개념도 연구: 진로 지속 여성과 중단 여성간의 비교. *상담학 연구*, 8(3), 1031-1045.
- 최한나, 김창대 (2008). 좋은 수퍼비전 관계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인식 차원. *한국 심리 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 1-21.
- Gioigi, A. (1995). Sketch of a psychological phenomenological method.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20(4), 12-28.
- Jackson, K. M., & Trochim, W. M. K. (2002). Concept mapping as an alternative approach for the analysis of open-ended survey response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5, 307-336.
- Kane, M., & Trochim, W. K. (2006).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Sage: California.
- Kruskal, J. B. (1964).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A numerical method. *Psychometrika*, 29, 115-129.
- Snyder, C. R. (1994). *The psychology of hope: You can get there from here*. New York: Free Press.
- Snyder, C. R. (2002). Hope and academic success in colleg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4(4), 820-826.
- Snyder, C. R. (2002). Hope theory: Rainbows in the mind. *Psychological Inquiry*, 13, 249-275.

- Snyder, C. R., Harris, C., Anderson, J. R., Holleran, S. A., Irving, L. M. et al. (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4), 570-585.
- Snyder, C. R., LaPointe, A. B., Crowson, J. J., & Early, S. (1998). Preferences of high- and low-hope people for self-referential input. *Cognition & Emotion*, 12(6), 807-823.
- Trochim, W. (1989). An introduction to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anning*, 12, 1-16.

## ABSTRACT

### A study on hope increasing strategies in crisis and current situations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the concept map method

Jang, Yumi\* · You, Kuml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strategies which can be used to promote the hopes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In this study, the concept map method was used and 20 ninth grad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about the strategies used to recharge hope in a crisis situation and to increase their current hope levels. The key sentences that were obtained from the interview data were classified and rated by the interviewees themselves. The concept map for the strategy which could be used to recharge hope were composed of six groups and each group formed a circular distribution in a 2-dimensional quadrant. The implicit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was divided into the internal-oriented and the external-oriented strategic directions. The criteria was also separated into the inspiration of a positive attitude and the elimination of negative emotions as the methods to deal with a current negative status. The concept map for the strategy to increase the current hope levels was composed of four groups. These groups also formed a circular distribution in the 2-dimensional quadrant. In this study, we found that the strategies could be divided, in psychological terms, into cognitive strategies and emotional strategies. In terms of dealing with a negative status, it could be also divided into the

---

\* Catholic University

inspiration of a positive attitude and the elimination of negative emotions. Last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hope, concept map, hope promoting strategies, hope increasing strategies

투고일: 2016. 2. 2, 심사일: 2016. 5. 3, 심사완료일: 2016. 5. 10